

# ‘KREI리포터’ 전남지회 간담회 결과

## 1. 개 요

- 목 적: 전남지회 리포터 활성화 방안 논의
- 일 시: 2018년 12월 13일(목) 11:00~14:00
- 장 소: 전남 곡성군
- 참 석: 총 18명
  - 전남지회 리포터(16명): 남양완, 이재월, 신규호, 노웅곤, 김천중, 김종근, 허윤자, 김진환, 주양호, 나종주, 홍창수, 배병열, 이행철, 이인, 채기송, 오형동
  - 연구원 관계자(2명): 송성환 팀장,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00~12:30	점심식사	
12:30~14:00	간담회	지회 활성화 방안

## 2. 주요 논의 내용

- 전남지회 리포터 활성화 방안
  - 남양완: 지난 11월 21일, 나주 본원에서 중앙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회별 활동내용을 발표하는데, 우리 전남지회만 활동이 부진하단 생각이 들어 매우 아쉬웠습니다. 회장의 능력이 부족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지회 활동을 돌아보니 지회 모임을 주최하거나 회원에게 안내하는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지회를 활성화 할 것인지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양호: 전직 회장으로서는 한 말씀 드립니다. 우선 남양완 지회장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채수미 총무께서 워낙 일이 바쁘시고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보니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카톡으로 안내하다보니 잘 모르는 회원이 많습니다. 전남지회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 카톡이나 밴드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편물도 보내고, 전화도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회원 참석을 독려해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 이재월: 지난 모임에 실제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회장과 총무가 이 그룹의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 주양호: 동의합니다. 지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총무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독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천중: 총무를 교체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채수미 총무님의 참여 의지를 먼저 확인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직접 못하겠다고 하셨는지요?
- 남양완: 오늘 이 자리에 총무님이 오셨어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채수미 총무님께서도 일이 바쁘시고, 지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총무로서 역할이 쉽지 않다며 교체해도 된다고 전하셨습니다.
- 주양호: 총무는 지회장이 직접 지명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어 맡게 되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회원의 동의가 있다면 새로운 총무를 선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송성환: 연구원에서는 총무 교체 건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회장님께 총무 선임의 권한을 드렸으니, 총무님이 사의의 뜻을 밝히셨고, 회원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새로운 총무를 선임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김미리: 맞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간 운영에 있어 잘잘못을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리포터 지회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남양완: 회원 분들은 총무 교체 건에 대해 모두 동의하시는지요?
- 전원: 동의합니다.
- 남양완: 그동안 애써주신 채수미 총무님께는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총무를 선출하겠습니다.
- 나종주: 저는 전남지회에서 가장 젊은 김진환 회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환: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농가 일뿐만 아니라 현장교수 등 하고 있는 일이 많아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분을 추천해주세요.
- 주양호: 저는 신규호 회원님을 추천합니다. 항상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시고, 오늘 이 자리도 꼼꼼히 챙겨주셨기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 신규호: 저도 한과 제조를 시작해서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만, 크게 어렵지 않다면 남양완 지회장님을 도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 동의합니다.
- 남양완: 신규호 회원님께서 총무를 맡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회나 연구원에 바라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응곤: 지역간담회는 미리 연간 계획을 세워 전 회원이 일정을 참고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성환: 좋은 의견입니다. 지회별로 연간 간담회 계획 등을 세워 연초에 공유하면 좋겠네요. 상반기 운영협의회 등에서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주양호: 우리 지회도 강원지회처럼 1박 2일로 회의를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전남이 시군 거리가 의외로 멍니다. 차가 없거나 이동시간이 길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박으로 진행해 중간에 오며 가며 다녀갈 수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1박2일 간담회는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회장님께도 설명드렸드시피 1박2일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식사하고, 친목을 다지는 모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 남양완: 그렇습니다. 시군 순회를 하던지 프로그램은 고심하여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 ○ 2019 리포터 연찬회 계획

- 남양완: 내년은 리포터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내년 연찬회와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 송성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내년 초에 올해와 같이 연찬회 이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나, 일단 하반기 운영협의회에서는 10년의 의미도 담고, 아직 회원 대부분이 나주에 위치한 연구원에 방문한 적이 없어 본원에서 행사를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노응곤: 아주 좋습니다. 전남지회는 모두가 가까우니 마다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 주양호: 연구원이 나주로 이전하면서 사실 전남지회의 활약을 기대했었습니다. 활동이 부진해 지금은 부족함이 많으나 처음 연구원 착공식에도 전남지회 회원 모두가 참석하고, 연구원 건물에 큰 현수막도 걸며 나주 이전을 함께 축하했었습니다. 만약 나주에서 행사를 치르게 된다면 우리 지회 차원에서 무언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남양완: 연찬회 코사지를 준비해 전남지회에서 전 회원에 나누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 허윤자: 그러면 내년도 연찬회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지회 모임을 갖고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 어떨까요?
- 남양완: 좋습니다. 일단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내년도에 정해보도록 합시다.

### ○ 기타 건의사항

- 이재월: 기존에 나누어준 현장수첩을 다시 제작할 수는 없는지요?

- 김미리: 사진을 포함해 이름, 연락처, 주소가 모두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개개인 전부의 동의 없이 제작물 배포는 어렵습니다.
- 이재월: 그렇다면 지회 회원명부라도 개인에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 주양호: 이전에 제작해준 명함을 다 사용했습니다. 재제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예산 상황을 고려해 연초에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해 원하는 분들께 제작해드릴 수 있도록 진행해보겠습니다.
- 신규호: 연구원에서 리포터로 위촉한 분 중에 아직도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방법을 브로셔로 제작해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촉 당시 활동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렸습디다만,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브로셔 또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해보겠습니다.

### 3. 이모저모

